



하나님을 소개함

12과. 2026년 6월 20일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 줄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이사야 50:4)



수천 명의(너무 많은) 사람들이 진짜 예수님을 모릅니다. 우리는 그들은 '잃어버린 양'이라고 부르지만, 정작 그들은 자기가 길을 잃었다는 사실도 모릅니다. 누가 알려 주지 않으면, 그들이 자기가 필요한 분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깨닫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지켜 보시며,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딤후 2:4).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뿐 아니라, 한 때 그분을 알았으나 떠나간 사람들도 포함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모든 사람들에게 다가 가실까요? 바로 우리를 통해서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세계적 대 사명'입니다.



무엇을 전해야 할까요?

➤ 위대한 명령(세계적 사명)



어떻게 전해야 할까요?

➤ 예수님의 모본을 따라 함

➤ 친분을 쌓음



떠나간 사람들을 다시 데려오는 방법

➤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찾아 나서심

➤ 떠나간 사람들을 찾아 나섬

무엇을 전해야 할까요?

위대한 명령(세계적 사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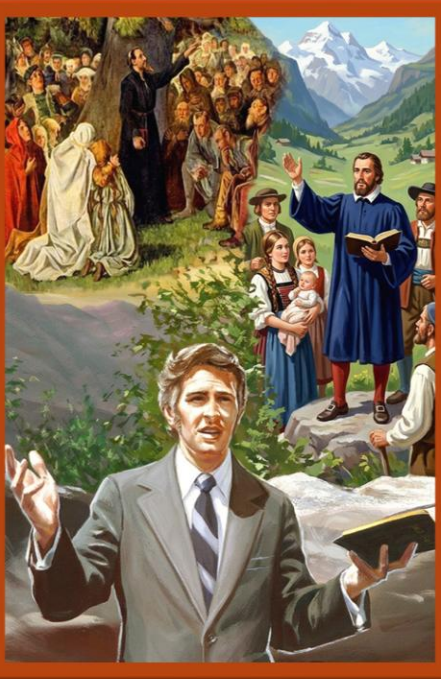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마 28: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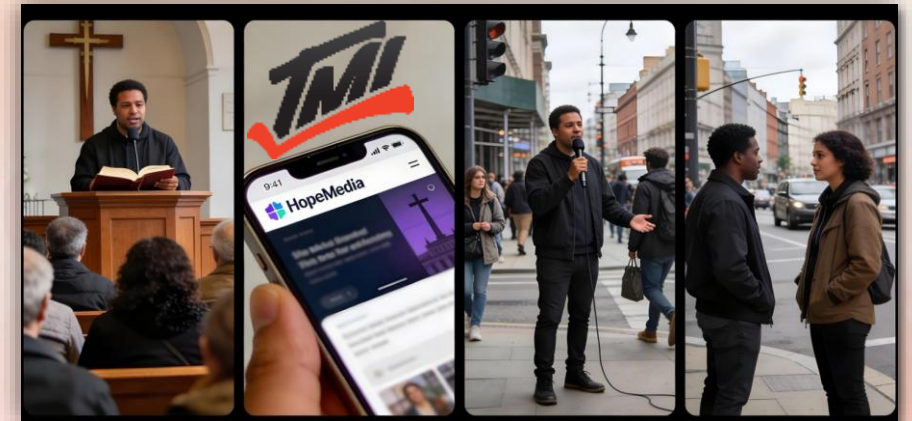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그분을 만나려고 모인 사람들에게 “모든 민족에게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마 28:18-19).

그들은 모든 민족을 만나 무엇을 해야 했습니까? 가서 제자를 삼아 즉, 사람들을 만나 침례를 베풀고, 예수님의 제자로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마 28:19-20).

그렇게 제자가 된 사람들은 다시 다른 제자들을 가르쳤고, 2천 년이 흘러 오늘날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명령을 받는 사람은 바로 우리들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선포한 것처럼 우리도 전할 수 밖에 없습니다(행 4:20). 우리는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거나, 거리에서 외치거나, 소셜 미디어에 간증을 나누거나,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일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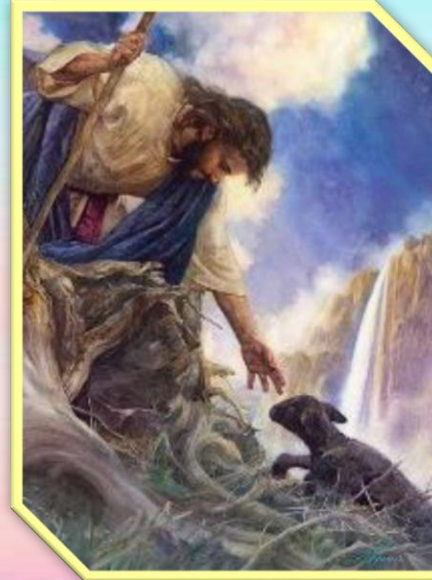
어떻게 전해야 할까요?

예수님의 모본을 따라 함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데도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고전 5:14)

예수님은 왜 그토록 “잃어버린 양”을 찾아나서실까요(마 15:24)?

당연히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마 9:36; 엡 5:2). 그리고 우리에게 자신의 사랑을 부어 주셔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누어 주라고 하셨습니다. “다 너를 위한 거야”라면서 억지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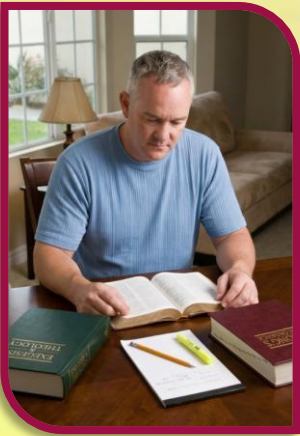


하나님은 강제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지 못하게 막지 않으셨습니다. 큰 홍수가 오기전에도 사람들을 억지로 방주에 떠밀어 넣지 않으셨고, 니느웨 사람들에게 자신을 받아들이라고 강요하지도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말씀하셨으며, 그들이 자기 마음대로 할 때 맞이할 결과에 대해 경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살 때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보고, 그분을 따라오게 됩니다.

친분을 쌓음

마음에 주님이신 그리스도를 거룩하게 모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간직한 희망에 대해서 그 이유를
묻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부드럽고 공손하게 대답할
준비를 하고” (벧전 3:15)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이며,
전하기 위해 스스로 준비 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벧전 3:15). 모든 사람이 설교자가
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모두에게 그 상황에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사
50:4).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 할 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몇가지 조언들을 소개합니다.



시간을 두고 그 사람을 알아가며 인간적으로
친해지십시오.



그 사람의 마음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그들과 친해질 수 있는 적절한 기회를
주시도록 기도하십시오.



나의 신앙 경험에 대해 자연스럽게
이야기하거나 그들과 같이 기도할 기회를
찾아보세요.



새로 사귄 친구를 신앙생활 하는 친구들과
연결해 줄 방법을 찾아보세요.



새로 사귄 친구들의 구체적인 기도 제목이나
질문에 대해 기도하십시오.



삶에 위로와 조언, 그리고 지침들을
성경에서 찾아보고 그들에게 알려줄 기회를
찾아보십시오.



성경을 같이 연구하고 싶은 지 물어보고,
그들이 준비 되면 침례 받을 의사가 있는지
물어봅니다.

떠나간 사람들을 다시 데려오는 방법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찾아 나서심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가끔 그를 꾸짖긴 하지만 나는 여전히 그를 기억하고 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그를 그리워하게 되니 내가 그를 불쌍히 여길 것이다. 이것은 나 여호와와의 말이다.” (렘 31:20)



성경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난 북 이스라엘 왕국과 신앙을 지킨 남쪽 유다 왕국으로 나누어졌습니다. 에브라임 족속이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는 아들로 생각하셨습니다(렘 31:20). 하나님은 이 현실을 에브라임의 할머니 라헬이 죄를 짓고 죽은 자식들을 애도하는 것으로 묘사하셨습니다(렘 31:15).



하나님은 그분을 섬기다가 떠나간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자신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여전히 사랑하시며 돌아오라고 끊임없이 호소하십니다.

같이 하나님을 섬기던 여러분의 자녀들 중에 하나님을 떠나간 자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등을 돌리지 말고 계속해서 그들을 사랑하고 다정하게 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분이 얼마나 떠나간 자녀들을 사랑하시며 그들이 되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신다는 것을 거듭 깨우쳐 주십니다.



떠나간 사람들을 찾아 나섬

“내가 비록 그들을 온 세계에 흩어 버렸으나 그들은 멀리서도 나를 기억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과 그 자녀들이 생존하였다가 돌아올 것이다.” (슥 10:9)



우리의 배우자, 아들, 딸, 친구, 이웃, 그리고 한때 같이 예배 드렸던 형제 자매들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은 여러가지 이유로 교회를 떠납니다. 우리의 사명은 그들이 떠나간 이유를 판단하거나, 비난하거나, 그들을 잊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사명은 그들을 찾아 나서서 다시 우리 품으로 데려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는 기도하는 것이고, 둘째는 그들에게 사랑과 친절의 모범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간 사람들에게 보여준 여러분의 삶, 행동과 말, 그리고 기도는 그 사람의 삶과 미래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복음 기별과 사랑의 사역을 모두 하늘 천사들에게 맡기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그분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다른 방법을 사용하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한한 사랑의 하나님은 그리스도와 천사들의 동역자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 일하는 사역에 참여함으로써 얻는 축복과 기쁨, 그리고 영적 성장을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초청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위해 설계하신 삶을 받아들여 그분을 위해 영혼을 구원하는 삶을 산다면 여러분은 거룩한 세계에 대한 더 깊은 경험과 지식을 원할 것이며, 의에 주리고 목마를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간절히 호소할 것이고, 믿음은 강해지며, 더 깊은 구원의 샘에서 생수를 마시게 될 것입니다. 반대와 시련에 부딪힐수록 여러분은 성경과 기도에 더욱 매달릴 것입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은 은혜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성장하며 풍성한 경험을 쌓게 될 것입니다.”